

기아차 29~30일 두번째 부분파업 예고

오늘·내일 노사 임금교섭 6차 본교섭 앞두고

노조, 투쟁강도 높여 협상 유리한 고지 선점 전략

기아자동차 노사가 27일부터 올해 임금협상 6차 본교섭에 들어간다. 지난 6일 5차 본교섭이 결렬된 뒤 21일 만이다. 하지만 노조는 교섭과 별개로 29~30일 두번째 파업일정을 예고하고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어서 기아차 노사는 당분간 지루한 조율과정을 반복할 전망이다.

26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이삼용

사장과 배재정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들은 27일부터 이틀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6~7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벌인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사측에 대해 임금협상안 및 별도요구안에 대한 일괄제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이 끝나는 대로 두 번째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투쟁 강도를 높여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1일 하루 오전과 오후 2시간씩 4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던 노조는 당초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 등 투쟁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앞서 29~30일 부분 파업 방침을 세웠다. 6~7차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이 취소될 수 있

으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들간 실시되는 파업은 지난 파업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주간 1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주간 2조 오후 5시 40분부터 7시40분까지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29일 오전엔 전과 오후 2시간씩 4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던 노조는 당초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 등 투쟁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앞서 29~30일 부분 파업 방침을 세웠다. 6~7차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이 취소될 수 있

에는 사내하청 정규직화,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회사 순이익 30%의 성과급 요구, 조건없는 정년연장, 주간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여가선용개선을 위한 기금 출연 건 등이 담겨있다. 한편, 기아차 노조가 지난 21일 실시한 부분파업으로, 광주공장에는 500여대가 생산차질과 함께 1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을 입었으며 기아차 전체적으로 생산차질 1262대, 매출손실 224억원을 기록했다고 기아차 관계자는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봉고트럭 증산 지연 더 이상 안돼”

광주공장 임직원·협력업체 등 결의대회

증산지연으로 인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광주공장 봉고트럭 증산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광주공장 임직원들과 영업부서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나섰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6일 오후 광주공장 대강당에서 김종중 광주공장장을 비롯해 봉고트럭을 생산하는 광주 3공장 임직원들과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모여 ‘봉고트럭 증산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김종중 광주공장장은 이 자리에서 “봉고트럭 증산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봉고트럭의 주요고객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어주기 위해서라도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광주공장 임직원들이 증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증산 추진을 위해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봉고트럭을 생산하는 광주 3공장 임직원 대표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총 역량을 집중해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 ▲기아차를 선택해 준 고객 사람에게 증산을 통한 적기 공급으로 보답한다 ▲서민형 생계차량을 생산하는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증산을 약속한다고 결의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장에서 열린 ‘봉고트럭 증산 결의대회’에서 김종중 기아차 광주공장장 등 광주공장 임직원과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협력업체 사원대표들이 함께 모여 결의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추석 연휴 임시 항공편 예약하세요

대한항공·아시아나 28일 접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8일부터 추석 연휴 임시 항공편에 대한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두 항공사의 임시 항공편 편성 기간은 추석 연휴 전날인 내달 17일 화요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내달 22일 일요일까지 6일간이며, 총 2만5500여석(대한항공 1만5500석·아시아나 1만석)의 좌석이 공급된다.

대한항공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nair.com), 예약센터(1588-2001), 여행대리점 등을 통해 연휴 임시 항공편 예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운항 노선은 김포~제주, 부산~제

주, 청주~제주, 광주~제주, 대구~제주, 인천~제주 등 제주 노선 6개와 김포~부산, 김포~광주 등 내륙 노선 2개 등 총 8개다.

1회에 예약 가능한 좌석은 최대 6석으로 제한되며, 임시 항공편 예약 고객은 지정된 구매 시한까지 항공권을 구매해야 좌석의 자동 취소를 방지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포~광주, 광주~제주 노선에서 추석 임시편을 운항한다. 김포~제주 노선은 내달 14일부터 하루 4편씩 증편한다. 1회 예약 가능 좌석은 최대 4석이며, 인터넷 홈페이지(www.flyasia.com)와 예약센터(1588-8000)를 통해 예약을 받는다.

/연합뉴스

청년창업·상생·지식재산 보증 집중 지원

신호남본부, 하반기 업무계획 확정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노용훈)는 올 하반기에 청년창업보증, 상생보증, 지식재산보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26일 올해 하반기에 신규보증공급 2879억원, 창업기업보증공급 2807억원, 수출기업보증공급 789억원, 신성장동력산업 보증공급 802억원 등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신규보증 공급액 가운데 청년창업보증 245억원, 상생보증 114억원, 지식재산보증 58억원을 하반기 중점지원 보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창업보증은 대표자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상생보증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보증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보증,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 펀드 협약보증 등이 있다.

지식재산보증은 보증신청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금원을 계기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안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호는 특허청으로부터 보증거래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

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신호 평가시스템과 특허청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평가·선별해 적급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에는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까지 차감해주는 한편 보증비용을 최대 100%까지 우대해 금융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노용훈 본부장은 “그동안 상당수 기업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신용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하반기 중점지원보증 선정을 계기로 고용창출 효과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물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한가위 愛鄉 이벤트’

광은카드 이용 고객 대상 무이자 할부·포인트 2배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광은카드를 이용하는 모든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가위 愛鄉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 행사 참여 등록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모든 가맹점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30만원 미만 이용금액은 3개

월, 30만원 이상 이용금액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행사 기간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2만포인트까지 포인트를 2배로 적립해준다.

또 연휴 전날인 9월 18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9월 22일까지 광주은행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10%를 포인트(최대5000포인트)로 제공한다.

행사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및 각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추석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농관원 전남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구돈화·이하 농관원)은 26일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까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66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562명이 투입되며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1단계로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를 단속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전통신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

한다.

2단계로 9월 2일부터 17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력제 이행 점검, 거짓 표시 여부 등도 단속하며 필요하면 유전자검사도 할 계획이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자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NH농협은행, 광주·전남 특성화고 10명 채용

NH농협은행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00명을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광주·전남지역에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특성화고 및 종합고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학교장 취업추천을 받게 되며 필기시험 및 면접을 거쳐 10월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 | |
|----------------------------|---------------------------|--------------------------------|-------------------------------|
| ▲ 코스피지수 1887.86 (+17.7) | ▲ 코스닥지수 533.73 (+4.54) | ▼ 금리 (국고채 3년) 2.94% (-0.02) | ▼ 원·달러 환율 1112.70원 (-4.20) |
|----------------------------|---------------------------|--------------------------------|-------------------------------|

2013 제2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

Gwangju & Jeollanam-do Youth Festival 2013

2013. 8. 31 (토) 오전 10시
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

- 중·고교생 댄스·밴드·풍물 등 각종 공연
- 대학 선택을 위한 입시홍보관 / 진로적성 상담관 운영
- 4대악 척결 UCC공모전 및 다양한 부대행사
- 유학 / 화상영어 설명회
- 대학 인기동아리 밴드·댄스 공연
- 광주FC 선수단 팬사인회 및 경품이벤트

주 최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광주일보사
주 원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지방경찰청 · 광주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광주FC · KDB산업은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경연대회 안내

| 경연분야 | 밴드 경연, 댄스 경연, 풍물 경연
4대악 척결 UCC공모전
수기발표 토론회, 3:3 길거리농구대회

| 문 의 | 062. 220. 0555 / 010. 5020. 5008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및 총 상금 1,000만원 상당 수여